

주일낮 예배 순서

오전 10시 30분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 (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시27:1-6	
영광송 550장 1,3절	
공동기도 주기도문	
성삼위송 43 장	
성서교독 교독문24번	
경배송 31 장	
기도 김용희집사	
찬양 446장 (주음성 외에는)	
성경봉독 시23:1-6	
봉헌 찬송 50 장	헌금위원 정재용집사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의의 길로 인도받는 삶이란?
기도 인도자	
송영 다 같이	
축도 오명현목사	
후주 반주자	
교회소식 인도자	
※ 다음주 기도: 정재용 집사 ※ ※ 헌상 위원: 정재용 집사 ※ 안내위원: 이정환집사, 함점순집사	

주일오후 예배	
시간 오후 2시	인도:오명현목사
신앙고백 사도 신경 다 같이	
찬송 308,394장 다 같이	
기도 김은혜집사	
성경봉독 삼상4:12-17 사 회 자	
강론 이 시대의 교회의 과제	
축도 오명현목사	
교회소식 사 회 자	
※ 다음주 기도: 김민수 형제 ※	
수요예배	
시간 저녁 8시	인도:오명현목사
신앙고백 사도 신경 다 같이	
찬송 308,394장 다 같이	
기도 김부자집사	
성경봉독 행2:14-21 사 회 자	
강론 베드로의 설교①	
축도 오명현목사	
교회소식 사 회 자	
※ 다음주 기도: 최덕임사모 ※	

1. 함께하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2.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성경대학 강의가 목요일 오전과 저녁에 진행됩니다.
4. 입원:최순애 권사(예수병원), 김공선집사(씨티병원)



함께하는교회
Church.Community.Together.



2010년 6월 6일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거룩한 사명과 헌신

바이블 아카데미

1. 성경대학 운영
2. 기독교 사상 세미나
3.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주일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0:30
유초동부	11:45
중고동부	12:45
대학청년부	12:45
오후예배	14: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 오명현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0-31 (063-905-3355)
이메일 : dasisijak@hanmail.net

캐신할 수 없는 아픔

오명현목사

5월 21일 '어머니, 불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옥상에 올라가지 마시고 아무 것도 하지말고 방에만 있어야 해요. 알았지요.' 된지 모를 불안한 예감을 안고서 외출을 했다. 금년에는 부쩍 어머니 걱정이 많이 된다. 편히 모시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에 늘 죄송스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

몇 시간 후에 돌아왔다.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인기척이 나자 가느다란 어머니의 목소리 '이리와 와', 어머니 방에 들어서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왼쪽 다리를 쭉 뻗친 채 '이불 빨래하다가 넘어졌다' 는 것이었다. 아 내가 집에 있으면 못하게 하니깐, 머니리 돕는다고 기회를 탄 것이 그만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119를 불렀다. 그리고 예수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자식 앞에서 한 번도 아프다 소리 안 하시던 어머니가 아프다고 신음을 하신다. 척박한 땅 토방 밑에서도 뿌리를 내리던 질경이와 같이 질긴 어머니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노라니 가슴이 미어진다. '고관절 골절' 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술도 할 수 있고 속히 완쾌하도록 도와주세요'. 수술 전까지 다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릎 정강이뼈를 뚫고 모래주머니를 달았다. 고통 중에서도 뼈를 건드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첫날 큰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깊은 밤에 병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앞두고 몇 차례 검사를 하느라 어머니를 보듬어 보았다. 왜소한 체구에 어깨 등, 옆구리, 손과 발 등이 깡말라 있었다. 세네 살까지 늘 업어주셨던 기억, 아니 6학년 때에도 가끔씩 업어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업어주시던 천사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도 마르셨다니....

전남에서 목회 했던 9년 동안 나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고, 어머니의 손에는 청소도구

들렸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시는 어머니, 목회자의 어머니로 살면서 숨죽이고 조용하게만 살던 어머니, 소박한 박꽃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가 저렇게 침상에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니 가슴이 무척 아려왔다.

26일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 기도해 주었다. 연로하신 탓에 부분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동안, '왜 사람 몸에 못을 박아, 사람을 살려야 하지 죽으라고 못을 박아' 아마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회복실에 있는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연신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었다.

아픔과 고통이 나의 것이 될 때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때는 느낌도 아픔의 농도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고통은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그 슬픈 수술환자를 보았어도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이번처럼 느끼지는 못했다.

어머니 그런데 어찌죠, 어머니의 아픔을 대신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대신해서 밥을 먹여줄 수 없고, 대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할 수 없고, 대신 병들어 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생명과 관련이 깊다.

대신 할 수 없는 아픔, 이 법칙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하는 개별적인 삶의 책임이 담겨져 있음을 엿보게 된다. ■

의의 길로 인도 받는 삶이란?

시작하는 말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해 가실 때 천원일률적으로 한 가지 양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요10장). 시편 23편에는 양을 이끌고 가는 장소가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이고 둘째는 의의 길이고 셋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의 비유로 시작하지만 단순히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중생해서 살아 있는 마음이라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압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사람은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때 모든 장애와 불의와 흑암을 헤쳐 나가시는 데 필요한 대로 우리를 무기로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란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16절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 받는 사람은 사명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체를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 몸으로 살 때 내가 어느 시대에 생존한다는 것은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16세기의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문제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 생애 속에 잘 드러낸 사람입니다. 칼빈이 살았던 당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종교 개혁에 가담하는 자들을 반역자로 보고 재산을 몰수하였고, 감옥에 가두었고, 때로는 화형과 참형을 시켰습니다. 특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제와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설’을 거짓된 것으로 몰아붙였던 때에 ‘기독교는 거짓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은 박해받은 기독교 이재민들을 위해서 썼지만 그 것을 왕에게도 보낸 편지가 되도록 주님이 쓰셨습니다. 칼빈의 위치는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너 이 일을 하라고 분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쉽 없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하였는지 늘 몸이 고단해서 병이 떠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의 열매를 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상태가 귀한 자리입니다.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삶인가?

목자는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큰 시각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시대마다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참된 사명 자는 돈을 벌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는...

1.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 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틀트신경’, ‘백지신앙 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증표를 기록한 사명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3.우리교회는 바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숲을보는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Holy Community

1.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2.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의의 병기로 나를 드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고,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해주세요.

3.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의 위치”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시대를 깨우친 사람들에게 정리해 보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4.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정리해 보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제4장 역사적 과제 (2) - 세속적인 사조(思潮)를 배격하라

오명현목사

사무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힘의 논리와 이방 문화의 허구에 붙들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법제가 실로에서 블레셋의 다곤 신당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엎어 버리셨다. 또 그 다음날 머리로 잘라 버리시고 팔도 잘라 버리시고 몸만 남겼다. 법제가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중기가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징계를 내리셨다. 그러자 법제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중기를 쏟아 부으셨다. 결국 법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삼상 5:11-12).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무기력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블레셋을 항복시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제가 그들을 항복시키고 말았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케에 항복을 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했다. 세속적인 힘의 방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과 이방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언약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때에 사무엘은 언약케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의 길에 살폈을 것이다. 언약케가 블레셋을 항복케 한 것, 언약케가 벤세메스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오만 칠십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 등을 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선지자로서 자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했을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케보다도 언약케가 담고 있는 참된 정신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이다. 사무엘은 새로운 원인을 심는 작업을 서둘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힘으로 논리로 이끌지 않았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가 다가 왔을 때 세속적인 힘, 곧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의 실체된 방법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릴 것을 요구한다. 바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사

회가 되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삼상7:7-9참고).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서 있는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제에 충실했다. 그의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과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에 대한 충성은 역사 안목에서 나왔다.

한국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언급한 글을 동감하면서 인용해 본다. “교회가 성경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했다. 교회가 역사와 민족을 위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또한 유희론적 상업주의와 성장 제일주의 등의 서구 실용주의에 편승했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지 못했다. 중략..., 비성서적 축복관과 기복신앙은 기독교적 사머니즘을 유발했다.” 윤리의 부재와 사회에 대한 사명 결여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힘의 법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적인 힘의 법칙에 유혹 당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 몰락주의이다. 대형 교회를 꿈꾸고,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려는 갖가지의 방법들을 보면 이미 힘의 논리에 붙들렸다는 증거이다. 이 세속주의적인 몰락주의는 사람의 영혼을 뒤틀 것으로 밀어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논리 앞에 무릎을 꿇은 듯 하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금년 상반기에 서울의 모 교회의 목사가 강의 내용 중에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했다는 논란이 증폭되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동등하거나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다원주의의 관점에서의 기독교는 더 이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페더린(Geoffrey Parrinder)은 제3의 종교개혁으로 보고 있다. 다행하게도 근자에 종교 다원주의를 집중적으로 논하는 학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스트라우스 박사는 “성경적인 교훈에 뿌리를 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성찰해 보면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세속주의의 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한다. ■

가정을 꾸리는 일을 하지만, 거기에 자기 일생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슬하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삼상 17:35).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그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 군사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에게 목을 내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삼상 17:46).

또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길로 인도 받는 과정이 얼마나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민족의 대의를 위해서 애굽이 주는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바로 왕에게 공주는 왕권을 이어받는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왕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40년을 보냈지만 그 길이 초라하고 버림받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이었습니니다. 40년 후의 모세에게는 사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겸손과 온유로 길러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 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출3:11,4:10,5:1). 의의 길로 인도 받는 사람은 자기 시대의 교회적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사람들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유를 많이 억압당하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항하는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루터가 사제나 주교(主教)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은혜의 자유 사상을 주장했으며, 근대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만이 아니라 전 유럽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걷고 있는가?

목자 되신 여호와와 인도를 받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 구조를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유일한 절대적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구원받고 저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물과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이 주는 결과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숙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고 했습니다(마22:37-40).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마음을 기울입니다(엡5:10).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엡5:1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엡5:8).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때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 그는 불신앙적 태도와 통치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불행했는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자신을 과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없음을 주장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생에 대해서 절망을 했고, 쇼펜하우어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어갔고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 받은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

월 화 수 목 금 토

6/7 마 8:1-4 6/8 마 8:5-13 6/9 마 8:14-17 6/10 마 8:18-22 6/11 마 8:23-27 6/12 마 8:28-34

나병환자를 고쳐주신 그리스도 백부장의 믿음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길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다. 그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주관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이다(마7:28-29).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나병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다.

1.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제
 - ① 율법에 보면 나병환자는 종교적인 의식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다(레13:3). ②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자는 허물이 있다고 규정했다. ③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허물을 속죄 받아야 한다(레5:6). 나병 환자는 격리의 대상이었다.

2.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리스도
 - ①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 줄 것을 애원했다. ②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 ③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보여주고 정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것이다. 가르치심과 행함에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

주님은 주로 갈릴리 북부에서 사역을 하셨다. 갈릴리 북부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다. 이 동네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와(막2:1-13), 또한 백부장의 하인과(마8:2-4),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다(요4:46-54). 그런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다(마11:23).

1. 자기 하인을 고쳐 달라 간구함
 - ① 본문의 백부장은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는 유대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인 중에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을 말한다. ②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중풍 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③ 지휘관은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하인을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겸손한 지휘관이었다.

2.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 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믿었다(마8:5). 또한 말씀으로 명하시지만 해도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② 그리고 그는 세상의 질서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질서체계를 깨닫는 고백을 했다(9절).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얻게 된다. 당시 시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기에 질병도 많았다. 그런 시대에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원은 먼저 죄에서 건짐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은 육신의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문에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

1. 열병을 고쳐주심과 그의 의
 - ① 가버나움에 사는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아 누웠다(눅4:38). ② 주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목해서 보았고, 그의 손을 만져주었다. ③ 당시 장로들의 유전(할라카)에는 열병이 있는 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규제가 있다. 주님은 접촉이 금지된 사람을 만져주었다.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2. 귀신들린 자를 고쳐 주심
 - 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② 귀신은 사람들에게 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님께서 그런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③ 귀신을 쫓아냄과 동시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징이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엡2:1). 우리 자신이 부정한 존재이다. 죄는 단절을 가져온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영적 단절은 육신의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셨다.

자신을 낮추는 믿음은 일반의 도덕성으로 되지 않는다. 겸손과 하인을 사랑하는 덕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온다. 또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죽은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보편성을 띠게 될 것을 엿보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특히 주님은 율법과 장로들의 규제가 형식주의의 변질 된 점을 아셨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고 사람들 중에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예수님만 따르면 어떤 병이라도 낫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다녔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하셨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1. 한 서기관의 가버운 각오
 - ① 한 서기관이 주님께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다. ② 서기관이란,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 안에 있는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들과 교사들을 말한다. ③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 정신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것을 기대지 않으심을 말씀하셨다.

2.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 ①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주님께 아버지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셨다. ② 이에 대해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③ 이 말씀은 당시 시대가 요청하는 긴박성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세상의 것에 매여있는 자가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지체들의 죽음을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또한 복된 과정이다(시116:15).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를 점검해보자.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중에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다. 이 때에 배를 타시는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동승했다. 주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푸시려고 배에서 주무셨다. 그 때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물이 배를 덮일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다.

1. 겁먹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움
 - 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 ② 그래서 바람과 큰 물결을 보고서 겁을 먹고 있었다. 자연의 현상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③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할 뿐이었다.

2. 주님의 능력과 말씀
 - ① 주님은 겁먹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다. ② 주님은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이 물러가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③ 제자들은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하는 말 이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는 의문만 표현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하늘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 아니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믿음이 요구된다. 그래야 세상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약령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귀신들을 이용하는가를 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귀신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왜 이렇게 귀신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그 사회는 하나님 대신 우상이 난무했고 영적 어두움이 지배했다.

1. 귀신들린 청년의 일그러진 삶
 - ① 가다라(가사라) 지방에 군대 귀신들린 자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②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매어도 그것을 쉽게 끊어버린다(막5:4). ③ 밤에 무덤에서나 산에서 괴성을 지른다. 상상만 해도 머리끝이 거꾸로 선다. 그의 생은 송두리째 일그러져 있다. 이렇게 사람이 악한 영에게 지배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

2. 귀신을 내 쫓아주시는 그리스도
 - ①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했다. 귀신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다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② 이 귀신이 자신들을 돼지 떼에게 들켜 보내달라고 한다. ③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 쫓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은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

주님은 사람의 육신에 든 병을 고쳐 주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주님이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이다. 어느 시대이든 지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해간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 주님은 하나님 이심을 이런 기적으로 드러내셨다.